



죄 지은 다음날

* 6/8(월) ① 열왕기하25 ② 시편137 ③ 애가1-2

예레미야 애가

1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 1-4 처량한 신세, 벼름받음
- 5-7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음
- 8-11 하나님을 향한 절규
- 12-22 극복 불가한 초유의 고통

2장 슬픔의 이유들

- 1-10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 11-13 참혹한 현실
- 14-17 왜 바로 말해주지 않았소?
- 18-22 심판의 냉혹함

3장 고통의 ABC

- 1-6(**בָּא**) 고통의 원인
- 7-18(**נַחֲזָקָה**) 현재 상태
- 19-24(**וְיִ**) 탈출구
- 25-42(**טִיכְלָמָג**) 해야 할 반응들
- 43-54(**צְפָנָה**) 변함없는 상황
- 55-63(**שְׁרָאָה**) 드디어! 전환점
- 64-66(**וְנִ**) 공의를 간절히 간구

4장 본토에 남은 자들의 고통

- 1-2 시온 아들들의 멸망
- 3-10 시온 백성들의 멸망
- 11-16 선지자, 제사장의 멸망
- 17-20 왕의 멸망
- 21-22 시온 딸들, 애둠의 멸망

5장 공동체의 간구

- 1 하나님의 돌보심 간구
- 2-18 남은 자, 고통의 실상
- 19-22 하나님의 자비 간구

참고도서

- 두란노 How 주석
-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 Lesen und Verstehen I (헤르만 만케)
- 다시 일어서는 목회(유진 피터슨)

주전 587년.

난공불락의 도시, 영원한 샬롬의 도시,
시온신앙과 다윗의 궁정신학으로 견고히 무장했던
남 유다 예루살렘이 붕괴되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살해되고,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왕하25).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견고한 약속이 있었습니다(삼하7, 시132).
선지자들은 ‘평안’을 말했습니다(렘23:17).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백성들의 삶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혼돈, 영혼과 육신의 고통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염습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유 있는 고통’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렘2-3).
언약 백성의 의무를 망각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렘34, 사5).
거짓된 안전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묵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렘23:16).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렘23, 27장, 애2:14).

열왕기하 25장에는 멸망의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서글프고 비참한 심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애가 1-2장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처지를 구슬프게 노래합니다.
(더 자세한 배경을 원하시는 분께는 예레미야 통독을 권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유 있는 고통’을 다룹니다.

죄 지은 다음 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 ‘죄지은 다음날’은 송병현교수의 애가 주석에서 차용한 표현입니다.

고통은 반드시 ‘사실’ 속에서 발생합니다.

고통을 용기 있고 진지하게 마주하는 일은 고통의 원인,

즉, ‘사실’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을 간과하고 감정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원인을 잊게 됩니다.

확장되고 상한 감정이 이성과 논리, 관계와 일상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 해 아브월 9일이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낭독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굴욕과 죽음, 흘어짐을 귀로 듣습니다.

그 때의 비참한 감정과 슬픔을 그대로 느끼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의 최후를 똑똑히 되새깁니다.

과거 언젠가 끝난 일로 여기지 않고 나와 공동체의 현재를 말씀에 비춰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혹 이유 있는 고통은 아닌가, 성찰합니다.

죄지은 다음 날. 쾌락과 유희의 순간은 짧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의 추악함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삶은 잘못 채워진 단추처럼 하나 둘 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들이, 관계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애가는 피폐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하는 한 사람과

공동체의 애절한 외침을 전합니다. 그들의 감정과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애써 무시한다고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원인이 된 죄를 분명하게 마주 보십시오.

서두름 없이, A-Z까지, 걸어야 할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십시오.

죄로 얼룩진 일상, 깨어진 관계, 혼돈, 죄책감, 피폐한 삶, 바닥을 치는 자존감.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출구가 없어’ 생각할지 모릅니다.

멀고 험할지라도 반드시 종결의 순간이 옵니다

애가는 누구나 겪고 있는 ‘죄지은 다음 날’의 혼돈과 고통을 다룹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와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질서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

삶 곳곳, 사소한 곳까지 깊숙이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무언가 벌어진 내 삶에 취해야 할 ‘다음’을 말해줍니다.

*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그 고통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 그로 인해 내가 감수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입니까?